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임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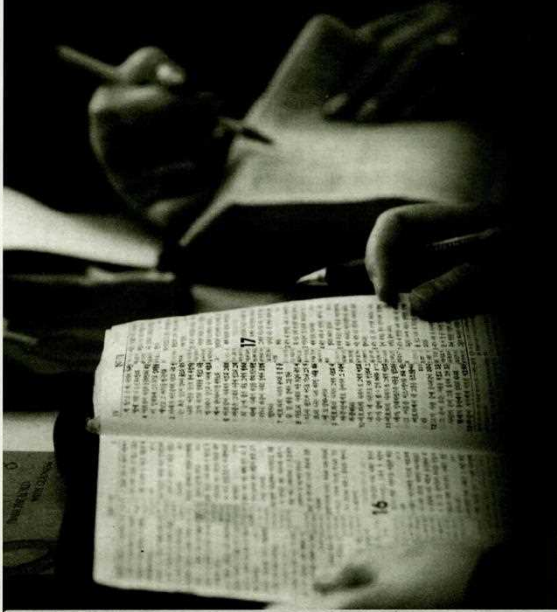
주간 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헌 편집 : 양재웅

말씀의 잔치,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2009년 제3차 청지기훈련

일 시 : 2009년 10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주 제 :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
(누가복음 23:34)
강 사 : 김성관 위임목사

온 성도들의 말씀잔치인 청지기훈련이 10월 23일 금요찬양집회 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 (시 16:1), '특별 기도' (눅 6:12)에 이어 이번에도 기도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저녁예배 시간 변경 안내

이번 주 수요일(10월 7일)부터 수요2부예배 및 금요찬양집회 시간이 저녁 7시로 변경됩니다.
(금요일 기도원집회 시간은 저녁 10시 30분으로 변경)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로마서의 주제 (1장~6장)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살리라"이다. 로마서는 그 전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보여 준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다(롬 1:16~17).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의 권세 밑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 즉 이방인들의 모습을 다룬다. 하나님의 선택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임을 2장부터 3장 20절까지 설명한다.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 아래 있다고 말한다(롬 3:9,19,20).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언급한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롬 3:21~24,28).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믿음의 도를 설명해 준다(롬 4:5,17,20 ; 요 8:56).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믿음의 도를 튼튼하게 세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 세대를 옛 세대요, 그 후는 새 세대로 나누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세계로 오심으로 새 세대, 곧 새 세계가 우리 인류에게 임하였음을 알려 준다(롬 5:1~2). 옛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러나 새 세계는 이와는 정반대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며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것을 소망해야 한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살 것이다. 사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 뜻이 무엇인가를 5, 6, 7, 8장에 걸쳐서 설명한다.

5장을 통하여 새 세계 안에 있는 진리와 근본, 즉 새 세계는 은혜와 평강과 소망의 세계임을 나타낸다. 또한 은혜와 평강과 소망의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놀라움이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히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졌다(롬 5:9).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하다.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에게 허락하신 것이므로 바울은 정확하게 율법의 의미를 해석하여 준다(롬 3:19~20). 율법은 새 세계에 속하지 않으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율법을 능가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소개한다(롬 5:21).

5장에서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질문이 있으리라는 것을 아는 바울은 6장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죄에서 자유해졌음을 설명하여 준다(롬 6:1~2).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롬 6:10~11,15). 죄는 옛 세대에 속하여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부터 해방된 자들이다. 율법은 죄를 없앨 수 없다. 율법 자체도 옛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의에게 드려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신다(롬 6:22~23). 아멘.

Sermon for Next Sunday

LET THE CHILDREN COME

(13)Then some children were brought to Him so that He might lay His hands on them and pray; and the disciples rebuked them. (14)But Jesus said, "Let the children alone, and do not hinder them from coming to Me; for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such as these." (15)After laying His hands on them, He departed from there.

(Matthew 19:13~15)

A lot of churches in Korea today have just old people left in them because their church leaders have neglected the young. It's true that children don't normally pay tithes, but do normally make noise, act inappropriate, and stir up trouble. One child can cause more wear and tear on church property than fifty adults. Without specially designed children's programs, kids just aren't interested in church. It takes a lot of time, effort, and people to evangelize children. Given such circumstances, why should the church try to reach children? The love of God is for all. John 3: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God loves every soul. The cost of the cross pays for young and old. The extent of God's love is shown in the fact that Jesus Christ died for those in whom there was nothing that evoked that love,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Rom. 5:8). In today's Bible verses Jesus invites all children to come to Him, and specifically instructs His disciples not to stop them. Evangelizing children is a very, very important responsibility! We need to take sharing, teaching, and preaching the gospel to children very seriously.

There will always be caring Christians to reach children. During Jesus' ministry, the Bible tells us, "Then some children were brought to Him so that He might lay His hands on them and pray"(Mt. 19:13). Loving parents, school teachers, bus drivers, youth workers, and the like are still eager to bring children to Jesus. It's the church administrators that aren't bothering to provide the necessary environment for them. This is a reality that Korean churches need to change. Children's minds are generally pure and simple, making them extremely capable of practicing faith quickly, much better than adults. Smart people always have a hard time letting go of their way of thinking to live the life of faith in Jesus Christ. Little children need more help in coming to Jesus than most grown-ups. We have to think about our children here today. We need to make their time in our church worthwhile. We need to share the gospel with them in child-friendly ways. More importantly, we need to show them Christ's love by loving them.

There will always be hindrances in reaching children. Jesus' disciples scolded the children, "and the disciples rebuked them"(Mt. 19:13) from coming to Him because they thought adults were more important. They thought Jesus was too busy to deal with children. They underestimated the love of Christ. Sadly, too many people in church leadership positions still overlook the needs of children. They fail to see the potential in a child. Little kids matter! Every child has a full life to give to Jesus. Each child is one for whom Jesus Christ died. Adults who were converted as children are more likely to enter full-time service. We can't close our eyes to the needs of our children. We can't afford to fail in giving them the gospel. Jesus loves them and wants His church to be full of them.

There will always be hope for all children. Jesus said, "Let the children alone, and do not hinder them from coming to Me; for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such as these"(Mt. 19:14). For those of you who already have children, just think for a moment how blessed you are. Children are a blessing from God. Jesus had time for children. He talked, touched, and valued them highly. He was never too busy for little children. Jesus ordered His disciples to allow, not forbid, the children to come to Him. No one should stop children from coming to Jesus. We must all come to Jesus in child-like faith. Each child should remind us of the simplicity of the gospel. Jesus laid His hands on children and blessed them, "After laying His hands on them, He departed from there"(Mt. 19:15). He prayed for children. We need to value the children in our midst. We need to make sure they know about the wonderful hope available to them in our Lord Jesus Christ.

My dear friend, trust in the Lord and open your heart to His little children. Who among us will take the time to bring children to our church? Who among us will rebuke the hindrances to reaching children with the gospel? Who among us will speak and sing out about the hope for all children? We must all come to Jesus with faith as a child. Let's appreciate God's blessing in our children. Let's respect, love, and care for them with God's love. More importantly, let's bring them to Jesus Christ. Amen.

다음 주일 설교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

(13)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15)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마태복음 19:13~15)

김성관 목사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는 장년층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젊은이들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십일조를 내지도 않고 시끄럽게 떠들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말썽을 피우는 게 사실입니다. 한 명의 어린이에게 들어가는 교회 재정이 50명의 성인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획된 어린이 전용 프로그램이 없다면 어린이들은 금방 교회에 흥미를 잃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어린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16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대가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 모두를 위해 치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든 어린 아이들을 자신에게 오라고 초대하시면서 특히 제자들에게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항상 도움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을 데려오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마 19:13).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 학교 선생님들, 버스 기사들, 젊은 근로자들 등등 그들은 여전히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반면 교회 행정가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그다지 애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바꾸어야 할 현실입니다. 어린이들의 심성은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때 어른들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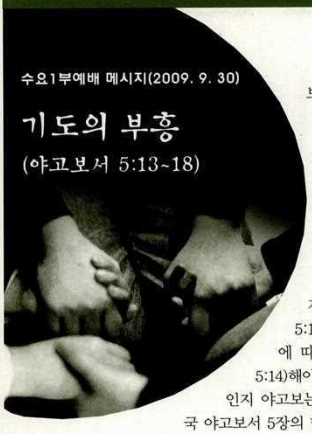
항상 수선함이 있다

어린이들을 데려오는 일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자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마 19:13). 제자들은 어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아이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지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린이들의 필요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보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전 생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어렸을 때 회심한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필요에 대해 못 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어린 아이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마 19:14). 여러분에게 이미 자녀들이 있다면 잠시 동안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 어린이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아이들과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며,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바쁘신 적인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복음의 단순함을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마 19:15). 주님은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소망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열어 어린이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가 어린이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에 시간을 바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책망하겠습니까? 누가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시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돌봐줍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9. 9. 30)

기도의 부흥

(야고보서 5:13~18)

"들으라 부한 자들아"(약 5:1). 야고보는 재물 욕심에 빠진 사람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였다(약 5:2~6). 또한 그는 신자들의 초점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있어야 함을 주의 강림과 마지막 심판을 예로 들며 권고하였다(약 5:7~12). 그리고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약 5:13). 기도는 인간 자신의 능력과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약 5:14)해야 함을 강조하며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야고보는 계속해서 밝혔다(약 5:15~18). 결국 야고보서 5장의 핵심메시지는 회개와 믿음의 기도이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으며 기도를 강조하셨다. 특히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강조하셨다(마 5:44,48, 6:5~13,33, 7:7~8 ; 눅 11:1, 18:1). 주님은 우리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기도가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이다(막 9:29). 왜, 기도의 부흥이 필요한가?

● 교회가 미지근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기도의 부흥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을 책망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계 3:16,18~19). 이 책망은 바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 있다. 진리는 사라진 채 세상에 섞여 종교예식만 있기 때문이다. 악한 영들은 거짓 종교인들을 이용하여 더욱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메마르게 할 것이다(마 24:11~12 ; 암 6:1).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의 초점에서 흐려지면 안 된다.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교회는 미지근해지며 반드시 세속에 물들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미지근해진다. 뜨겁게 기도하자.

● 땅에 속임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 땅에 속임이 가득 찼기 때문에 기도의 부흥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 이 신자들을 '미혹' 한다는 것이다(마 24:4~5,11,24). 미혹하는 사람은 많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도 가졌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들은 반드시 속는다. 속을 뿐만 아니라 속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딤후 3:13).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와서 어그러진 말로 우리를 속일 것이다(행 20:28~30). 따라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허탄한 이야기에 속을 것이다(딤후 4:1~4). 자존심을 지키며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땅에 가득한 속임수에 넘어간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에 기도의 부흥이 필요하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신다(요 14:26). 성령님은 진리이시기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요 16:13).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몸소 체험하였다(행 16:6~7,9).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해진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자.

●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기도의 부흥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구원을 위해서였다(눅 19:10).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겠는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하지 않을 때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계 20:14 ; 마 8:12). 악한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자(롬 6:23 ; 요 3:16).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세상에 물들어 영원한 사망에 처한다. 정신 차려 기도하자.

우리의 삶과 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절실하다.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져 땅에 가득한 속임으로 인해 병들게 된다. 또한 영적으로 둔해져 성령님의 가르침보다는 악한 세상에 물들어 진노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외식적인 기도가 아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참된 기도의 부흥을 소망하자. "주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메시아의 죽음 ③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성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라고 흔히 말한다 기독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공의 인물 또는 신화적인 사람이 아닌 역사 속에 실존하였다. 이것은 타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인정한 사실이다. 또한 타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독특한 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기독교가 역사성을 가진 것처럼 메시아의 죽음도 역사적 사실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고난 이야기에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이 과연 있는가? 복음서의 초점은 메시아였다. 특히 복음서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우선했던 근거는 구약의 말씀이었다(행 2:17 ; 욜 2:28~32). 그들은 "기록된 바"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메시아와 관련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밝혔다. 복음서 기자들은 일반 역사 자료보다는 역사성이 담겨 있는 구약성경에 기초하여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도 기록하였다. '예수님의 고난이 구약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 의미가 중요했으며, 이 대답을 구약성경에서 찾은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은 성경에 있다(사 11:11).

어려움 메시아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가 기록된 전후 상황을 볼 때 이것을 명료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하는 많은 부분이 구전(口傳)되었기 때문이다(딤전 6:13).

연속성이나 비슷함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과 Q문서(예수님의 어록)에 근거하여 복음서를 기록했다. 요한은 한 사건을 두고 마가와 다르게 묘사한 부분도 있다. 이와 같이 사복음서는 연속성이나 비슷함이 있지만 한 사건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기록하였다. 그러나 공통된 진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다(마 26:42,45).

지식의 제한성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완전히 밝히기에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지식의 제한성 때문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과 죽으셨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역사와 구전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예수님의 고난은 역사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한 복음서가 기록된 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역사와 구전을 대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듯 구전의 증거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전 11:23~25). 우리는 구전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구전을 성경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확실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와 구전을 대하는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어야 한다. 이것은 성경 해석의 목적이기도 하다. 성경 해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함이지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위함이 아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예수님의 고난은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성이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초점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외면하지 말자. 매순간 자존심을 버리고 회개하자. 성경을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걷자.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예수님은 누구시고 복음 전파란 무엇인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나는 그 답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 전파가 무엇인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교에서, 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진정 믿고 알고만 있었다는 사실을 새로이 깨닫게 되었다. 선교를 떠나기 전에 언어 훈련도 많이 하고 사역지에 대한 정보도 상세히 알아갔다. 그러나 현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 보았지만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나는 주님께 불평을 토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내가 했던 이 불평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령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한 결과에는 상관하지 않으신다. 어차피 그런 생각의 결과를 뛰어넘으실 텐데, 굳이 그것을 상관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언어를 좋은 발음으로 하든 못하든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텐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를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분인데, 우리가 굳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가 불만을 품었던 것에 대해 회개를 하였다. 모든 불만의 중심에는 '나'가 있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닌, 나 때문에 불만을 품었던 것이다. 이렇게 내 맘속에 예수님은 어디가고 나만 남아 있는 것에 대해 회개를 하였다.

이제 선교지에서 깨달은 것을 앞으로의 삶에도 적용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등을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내가 하길 바라시는 것, 내가 하지 않길 바라시는 것, 내가 두려워하길 바라시는 것만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하나씩 서서히 내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다. 나 혼자는 못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추수환(대학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차에서 바라본 사역지의 모습은 나에게 문화적인 충격이었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누워 있는 사람들, 허물어진 낡은 건물들, 찌는 더위와 낯선 냄새, 입에 맞지 않은 음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신 중의 하나이거나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대상이었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시킨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선교지의 사람들과 여러 학생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니 나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갔다. 주님은 죄인인 나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지역적, 환경적인 악조건으로 말씀 전하기를 꺼린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기도하지 않으며, 거만하고, "내 십자가를 지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로만 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비록 몇 개월밖에 준비하지 못하여 어눌한 언어지만 나의 말을 들으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사람들을 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인간적인 사고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셨고, 어떠한 용도로든지 우리를 사용하셨다. 많은 영혼을 만나게 해 주셨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큰 탈 없이 선교를 계속하게 해 주셨다. 고난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고, 세상적인 것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여 복음적인 언행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실수투성이고 영적으로 나약한 나를 선교에 써 주시고, 주님을 듣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는 성경 말씀처럼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다. 사역을 나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예수님' 이란 말만 들어도 시선을 피해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나도 이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라고 생각하니,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거라고 내 자신에게 한 번 더 다짐했다. 더욱더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맘에 참된 기쁨이 찾아옴을 느꼈다. 진심으로 주님의 신자가 되기를 원하였고, 주님 닮기를 원하였다. 비로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강청솔(고등부)

이 땅에 가득한 죄악, 가득한 우상을 태워 주소서

석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던 선교지에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하게 되니 마음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로 넘쳤다. 꼬박 하루를 걸려 도착한 이곳에서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은혜 충만, 의욕 충만이다. 이 땅, 이 지역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의 보혈의 은혜 가득한 십자가 복음의 땅이 되길 기도하였다. 막상 사역을 시작하려는 아침, 비가 많이 왔다. 하늘에서 쏟아지듯 부어대는 비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공산국가라 공안과 신고체제가 잘 되어있어서 사역이 어렵다고 하여 염려가 더 되었다. 하지만 걱정 근심을 모두 주께 맡기고 사역에 임하자 이 땅의 학교, 관공서 등이 눈에 들어왔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힘을 얻어 나가자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되었다.

선교지 사람들은 순박하고 순수했다. 그들을 보며 정치적 제도에 묶어 복음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기도하게 되었다.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어느 동자승을 위해 우산의 그늘에서 벗어나 한 자유를 누리도록 기도하였다. 축호전도, 어린이 사역, 지나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기회를 주시는 대로 말씀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이번 선교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순간 순간 내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경험과 내 생각을 우선하려던 죄이 많았다. 그때마다 나의 방법, 경험, 지혜를 포기하고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떠올랐다.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이 땅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역자로 부르셨고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셨음을 깨닫는다. "주님 먼저 이 땅에 가득한 죄악, 가득한 우상을 태워 주소서. 제하여 주소서. 이 땅의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참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권혜진(청년1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5일(월) ~ 10월 13일(화)	20교구 3팀	김기홍
10월 6일(화) ~ 10월 14일(수)	22교구 3팀	구청회
10월 7일(수) ~ 10월 15일(목)	1교구 3팀	이용의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21일(월) ~ 9월 29일(화)	10교구 4팀	정문호
9월 22일(화) ~ 9월 30일(수)	5교구 3팀	김옥권

간증과 나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따라!

지금까지 저는 믿음이 굳건하고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금요찬양집회와 주일 찬양예배 때마다 위임목사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믿음의 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금요찬양집회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며 그 동안 내가 주님보다 더욱 강하게 바라보고 붙들고 있던 줄들을 자르셨고 그 과정을 조용하면서도 강하게 이루셨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줄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붙들고 있던 줄, 진로를 향해 붙들고 있던 줄, 사람을 향해 붙들고 있던 줄, 죄를 향해 붙들고 있던 줄,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붙들고 있던 줄. 저는 주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렇게 다 자르시면 저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죠?' 주님께로부터 대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다 잘라도 네가 나만을 보며 붙들며 사랑할 수 있니?'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껏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들고 살았던 것인지 주님의 질문 앞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20)라는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붙들지 않으셨고 죄를 붙들지 않으셨으며 예수님 자신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들고 의지하셨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일 찬양예배 가운데 증거되었던 위임목사님의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할렐루야!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약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 하나 붙들지 않으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약해지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낮아지고 약해지시는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로 낮아지셨고 약해지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붙들고 있던 줄들을 자르셨던 것은 약해지기 위함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 아멘!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이미 차고 흘러넘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세상도, 진로도, 사람도, 나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말구유에 누우신 가장 낮고 겸비하게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걸으신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 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고난과 아픔의 길이지만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기에 기쁨의 길이 되며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빌 2:5~7)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져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김 결(대학부)

믿음 안에서

나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찬 359장)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나의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욥의 곤고함을 연상하면서 나는 주님과 신앙의 줄다리기를 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뒤로 처지면 어느 사이엔가 주님은 성경 말씀으로 인자한 음성이 되어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내가 교만하고 못난 자아를 드러낼 때면 어김없이 성령으로 나를 채찍질하며 주님 곁으로 돌아오길 원하셨다.

그러나 나는 1995년 이후 성도가 아닌 교인이 되어 주일예배만 드렸다. 그즈음 학교보다 교회 생활을 우선으로 하던 큰아들이 내게 교회에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군대에 갔다. 때마침 교구 목사님이 전화로 봉사를 권유하셔서 봉사를 하게 되었다. 봉사를 하면서 예전부터 들어왔던 십자가 복음이 매번 듣던 설교 말씀이 아니라 조금씩 새롭게 귀에 들어왔고, 자칭 구두창 신자라던 나도 자기부인에 대해 순간순간 생각하게 되었다. 수년간 들어오던 설교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설교, 나를 위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주님은 교구에서도 일꾼으로 섬기게 하셨다.

그러나 몇 년 전, 선교를 준비하던 중에 심한 피로감과 무력감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니 의사의 말이 간 수치가 보통 사람의 10배 이상이고, 간부전으로 심한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하였다.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의 믿음은 연약해졌고 주님을 향한 불만이 쌓여갔다. 하지만 주의 은혜로 간 수치는 3개월 간의 치료 후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 약을 복용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할 때임을 간절히 깨달으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도 가까워지고 있다. 나의 남은 삶의 시간이 얼마일지는 주님만이 아신다. 지나온 삶이 너무 아깝다. 왜 진작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청지기로 일꾼 삼아 주신 주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며, 나의 삶 모두를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 성령의 음성에 귀기울이며 주님의 교회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순종함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김정배(집사, 6교구)

자신을 부인케 하시는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조차 예수님 믿게 하심에 감사드린다. 나는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할 여건과 믿음을 달라고 오랜 시간 기도해 왔다. 이제는 기도의 응답으로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느끼곤 한다.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놓아 두지 않으셨다. 대심방 때에 나도 모르게 나의 아픈 상처와 나의 모든 삶을 다 말해버려서 구역식구들과 목사님, 전도사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 속내를 다 말한 것을 후회하고, 수치스러움과 나의 자존심 때문에 많이 울고, 잠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중에 나는 금요찬양집회에서 기도 중에 내 귓전에 들리는 듯,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모든 포장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순수하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렸다. 본당 좌우에 써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쳤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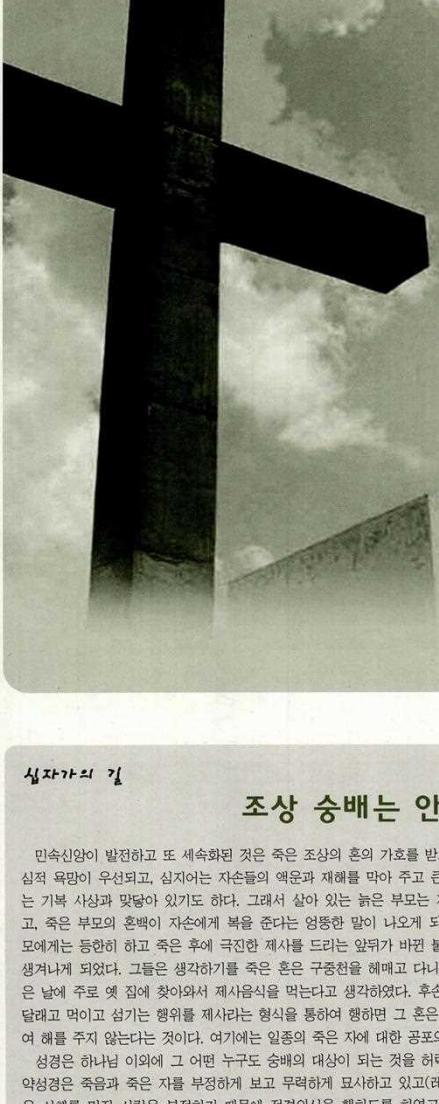
지난 청지기 때에는 회사직원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천국 잔치를 한다며 초청을 했다.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직장 내 부서별로 돌며, 청지기훈련에 갈 사람들에게 빵을 돌렸다. 9명이 교회까지 걸어서 한 줄로 갈 때에는 마치 천국에 줄서서 가는 기분에 행복감이 넘쳤다. 나는 회사에서 신우회 회원으로 가끔씩 예배 인도를 한다. 지난 번 예배 인도 때에는 강하게 말씀을 전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모두 낮아져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 앞으로 나아가고, 거짓의 옷, 육심의 옷, 명예의 옷 모두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외쳤다. 임직원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다.

내가 회개하고 다시금 눈을 뜨니 하늘도 아름답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어 있었다. 이제 금요찬양집회를 위해 주의 전을 찾는 내 발걸음은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마치 예수님께 선물 받으러 가는 어린 아이처럼 설레기만 한다.

김현심(집사, 12교구)

새가족양육부 9월 수료자 (1)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예수님에 대해 교육을 통해 확실히 알았습니다. 앞으로 내 구주로 믿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열심히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한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한상옥)*

이 세상에서 저만 열심히 하고 잘하면 모든 것을 이룰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인이고 주님의 일꾼이므로 제 의지, 제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인인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꼭 안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유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평소 듣던 말씀인데 학습을 통해 놀랍고 귀한 사랑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날까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항상 말씀 먹으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황나현)*

지금까지는 내 위주로 세상을 살아왔는데 교회를 다니며 나의 삶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들을때마다 부인하지 못한 제가 너무 싫습니다. 마음대로 안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말씀과 찬양을 들으며 공부하겠습니다. *(홍지연)*

새가족양육부에서 공부하는 동안 양육교재 표지의 새싹같은 제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물을 부어 주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한 기회였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깨달았고 주님과의 소통이 더 많아졌습니다. 좀처럼 쉽지 않았던 기도도 어느새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음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과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김미희)*

청소년기 3년과 미션스쿨인 대학교 4년과 충현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양육부를 다니기 전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서로 다른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을 받으며 같은 분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지 얼마 안 되지만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함께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와 교제 하면서 성장하겠습니다. *(박신구)*

교육을 통해 원죄, 임마누엘, 평안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정명순)*

주님을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서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한영숙)*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앞으로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김경화)*

주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모든 일을 내어 맡기는 일 모두가 희미하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짐을 느끼고 천국을 꿈꾸는 은혜를 깨닫았습니다. 곧 이루게 될 가정 안에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물질이 생기는 것 또한 이끄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 복음 전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가정을 이루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천국 소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조내영)*

25년 동안 충현교회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늘 교회에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하던 중 해외여행 중 만난 일행들에 의해 말씀을 들으며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의 믿음이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진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말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강형자)*

십자가의 길

조상 숭배는 안 됩니다(2)

민속신앙이 발전하고 또 세속화된 것은 죽은 조상의 혼의 가호를 받고자 하는 자기중심적 욕망이 우선되고, 심지어는 자손들의 액운과 재해를 막아 주고 큰 복을 내려 준다는 기복 사상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그래서 살아 있는 늙은 부모는 자손을 돕지 못하고, 죽은 부모의 혼백이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 엉뚱한 말이 나오게 되어 살아 계신 부모에게는 등한히 하고 죽은 후에 극진한 제사를 드리는 앞뒤가 바뀐 불효한 제사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죽은 혼은 구중천을 헤매고 다니면서, 그 혼은 죽은 날에 주로 옛 집에 찾아와서 제사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였다. 후손이 그 주린 혼을 달래고 먹이고 섬기는 행위를 제사라는 형식을 통하여 행하면 그 혼은 후손들을 보호하여 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종의 죽은 자에 대한 공포의식이 담겨 있다.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누구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구약성경은 죽음과 죽은 자를 부정하게 보고 무력하게 묘사하고 있고(레 7:24, 22:8),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하였고, 거역할 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도록 엄하게 명령하고 있다(민 19:11,18~20). 이와 같이 죽은 자에게 강력하게 부정성을 부여한 의도는 죽은 자 숭배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배척사상은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이나 죽은 자에 대한 어떤 형태의 섬김 행위나 죽음을 미화시키려는 숭배적 요소가 들어올 것에 대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죽은 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우상숭배 행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막 12:27).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사복음서에서 강조한 것으로 보아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상에 대한 인식도 숭배의 대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63	조정옥	24	장년2부	신옥자(24)
1364	최미화	1	청년2부	이인순(10)
1365	배수현	24	청년2부	이인숙(24)
1366	이범억	17	장년3부	김성자(22)
1367	안송이	17	대학부	권진숙(6)
1368	최경호	15	장년1부	조옥자(19)
1369	신은정	3	청년1부	지유미(17)
1370	윤나영	7	청년1부	안세현(3)
1371	이 상	21	장년1부	문우식(21)
1372	윤태웅	24	장년3부	김종란(24)
1373	강경화	22	장년2부	장선자(16)
1374	김유석	25	에바다부	김희정(25)
1375	윤인섭	25	장년2부	변창대(10)
1376	안영남	13	장년2부	정길자(13)
1377	전세몸	24	대학부	정경희(24)
1378	이연진	8	청년1부	정경진(3)
1379	이승재	24	고등부	남정애(24)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 임

1. 권사 3 · 4지회 기도회
   일시 : 6일(화) 10:00 교회 출발
   장소 : 충현기도원

별 세

1. 황귀남 타교성도(황경석 집사의 부친 · 박성애 집사의 시부, 4교구 포이2구역) / 9월 24일 별세, 9월 27일 장례
2. 정귀례 타교권사(박옥자 집사의 모친 · 이명규 성도의 장모, 14교구 서초3구역) / 9월 25일 별세, 9월 28일 장례
3. 김경희 타교집사(김주호 성도의 모친, 6교구 잠실4구역) / 9월 28일 별세, 9월 30일 장례

결 혼

1. 손형석 군(손진호 집사 · 박혜숙 집사의 아들, 타교)과 유은혜 양(유치배 집사 · 김정례 집사의 딸, 16교구) / 10일(토) 13:00, 해피데이 컨벤션 웨딩홀 (☎ 452-1557)

외선부 가을수련회

일 시 : 3일(토) 10:00~4일(주일) 14:00
장 소 : 제1교육관 307호(예배실)

당회고시 및 면접

일 시 : 10일(토) 14:00
장 소 : 제1교육관 307호 외 지정장소
대 상 : 2009년 안수집사 · 권사 피택자

선교언어 훈련

일 시 : 매주일 15:00
장 소 : 제1교육관 405호(내몽골) 501호(캄보디아) 504호(우크라이나) 508호(인도) 509호(스리랑카) 510호(라오스)

총동원 전도집회

부 서	일 시	장 소
6교구	11일(다음 주일) 14:00	제1교육관 501호
10교구	11일(다음 주일) 14:00	아멘홀
15교구	11일(다음 주일) 14:00	제2교육관 4층
22교구	11일(다음 주일) 14:00	충현복지관 지하2층

총력 교회주변 전도

일 시 : *여전도회* 14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17일(토) 14:00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지회-301호 2지회-307호 3지회-401호 4지회-407호

2009년도 제5차 학습 및 세례식

날 짜	시 간	학습자	장 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 소	유아세례자	장 소
10월 11일 (다음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 개요 (윤요한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란? (최성득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40	기독론 (최강전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박용현 목사)	교육관 304호		
10월 18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 개요 (박준식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이광현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란? (탁정헌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 답	교구별 장소	문 답	교구별 장소		
10월 25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찬양예배, 본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 바람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홀)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 바람	

희망 2009, 사랑나눔 행복가득

충현복지관 바자회 물품후원 접수안내

저소득 가정 및 지적 · 자폐성 장애인 사업비 마련을 위한 충현복지관 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바 자 회 2009년 10월 28일(수)
2. 후원물품 접수 및 문의
❶ **접수기간** 2009년 9월 10일(목)~10월 20일(화)
❷ **접 수 처** 충현복지관 1층 지역복지팀 **후원물품이 많은 경우 복지관에서 가정이나 회사에 방문수령*
❸ **후원물품** 의류 · 잡화 · 생활용품 · 화장품 · 의약품 · 식품(농 · 수산물) · 생활가전
바자회 먹거리장터(음료 · 커피 · 빵 · 떡 · 김밥 · 농산물) 재료 후원가능 **중고물품 접수불가*
❹ **문 의** 충현복지관 02-564-4557 (02-564-4885, # 110)
지역복지팀장 박신영 010-5290-3687 / 기획홍보팀장 김성우 011-9774-6897
3. 후원자의 혜택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혜택

10월 충현 기도의 창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1.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 (눅 23:34)의 주제로 열리는 2009년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모든 성도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2.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3.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4.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전 4:6)되게 하소서.
5. 1 · 1 · 1 전도(딛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6.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7.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8.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 납골시설 건립 및 함양 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새벽기도회 (10/5~10/11)

	5 (월)	6 (화)	7 (수)	8 (목)	9 (금)	10 (토)	11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김승곤	김익환/이정신	장 훈/서상근	강명구/황재현	하종철/김 근	안치원/김말자	최성득/류진회
설 교 본 문	메시아의 죽음	롬 15:14~21	롬 15:22~33	롬 16:1~16	롬 16:17~27	고전 1:1~9	고전 1:10~17

예배 담당 (10/7~10/11)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양
10/7	수요 I	선교지로 오세요(행 16:6~10) 김성관 목사	유재진	이경애	저 북방 얼음 산과(호산나 찬양대)
	수요 II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롬 5:1~11) 안일찬 목사	이순식	이늠이	십자가로 가까이(실로암 찬양대)
10/9	금요찬양	김성관 목사	김운창	예루살렘 찬양대 / 소프라노 김찬미, 김은진, 조우빈 / 피아노 5중주	
10/11	주일 I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마 19:13~15) 이재현 목사	이순식	박덕양	〈예배 전 찬양〉
	주일 II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마 19:13~15) 이회식 목사	탁정헌	이보신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외 / 바이올린 이에스더(임마누엘 오케스트라 악장)
	주일 III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마 19:13~15) 김성관 목사	김익환	박종율	예수께로 가면 외 / 바이올린 박 민(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주일 IV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마 19:13~15) 장 훈 목사	하종철	배춘식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외 / 소프라노 문은희(아멘 찬양대)
	주일 V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마 19:13~15) 최진철 목사	유현철	최윤덕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외 /예본 중창단(지도: 이상민)
	주일찬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김성관 목사	최강전	장경욱	핸드벨 연주대 / 16교구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 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 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 등 1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 등 2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 등 3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 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 년 1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 년 2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장 년 3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장 년 4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1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갈 릴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주) 오전 8:30~오후 6:00 (금) 저녁 6:30~저녁 9:00	선교관 1층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 다 니 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1교육관 7층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 현 복 지 관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시무장로

노광헌 당회서기	이 훈 재정위원장	김종구 충현기도원감	차신득 제3교육위원장	이종석 찬양위원장
임무천 22교구장	진홍용 행정위원장	전홍렬 재정위원	김단용 18교구장	한송규 기획위원
김환기 소망부장	원용철 선교위원장	이형수 건축위원	안동현 장년3부장	황의만 12교구장
김구형 제2교육위원장	최윤덕 23교구장	이계인 실로암찬양대장	박덕양 시설영선부장	이태식 11교구장
박홍규 봉사위원장	권명옥 예배위원장	조종환 제2교구위원장	배춘식 차량안내부장	김영달 기획위원장
이실호 전도위원	최지윤 건축위원장	노영한 19교구장	박철구 9교구장	정청길 장년2부장
신상수 재정위원	고제승 7교구장	강철형 기획위원	김영은 기획위원	이달옥 소년부장
장철환A 새가족등록실장	김승곤 감사위서기	함철주 17교구장	윤석민 예배위원	정선현 24교구장
안석현 제1교구위원장	김연근 양로원추진위원	김창국 감사위원	김중선 유년부장	임창식 영유초중도서실장
진학래 동산부장	김신국 1교구장	전계식 전도위원	전은배 20교구장	석영식 아멘찬양대장
구재완 중등2부장	송두섭 제1교육위원장	유상태 탁아부장	박상대 중등1부장	김규석 전도위원장
신광철 선교위서기	정창수 2교구장	엄복섭 가브리엘찬양대장	이상석 15교구장	오순도 외선부장
양기수 4교구장	김태식 당회부서기	김철환 16교구장	김연태 10교구장	김종홍 영아부장
장철환B 감사위원장	정태동 유아부장	이세영 할렐루야찬양대장	이성섭 기도원부장	장철규 21교구장
이보신 고등부장	이상해 13교구장	김성호 5교구장	조중민 8교구장	이호일 초등부장
추병창 유치부장	최세진 임마누엘찬양대장	김홍기 에바다부장	박광식 6교구장	류기명 14교구장
박성명 새가족양육부장	이상복 청년1부장	지규성 청년2부장	박종율 대학부장	

■ 부목사

박인기 에바다부	정진호 제2교구위원회	김익환 제1교구위원회	장 훈 12교구	이회식 선교위원회
하종철 5교구	안치원 2교구	양재웅 편집국	유재진 3교구	강명구 11교구
양태선 17교구	유현철 대학부	탁정헌 4교구	김완수 외선부	최성득 22교구
최강전 23교구	박용현 24교구	강현철 9교구	이광현 16교구	강호성 21교구
윤요한 15교구	김근영 청년1부	박준식 8교구	최진철 19교구	정민권 14교구
김창성 7교구	이재현 6교구	이순식 18교구	안일찬 고등부	송제호 중등3부
김성현 중등2부	김백만 20교구	김운창 1교구		

■ 여전도사

윤인숙 15교구	김연식 3교구	홍순애 5교구	이옥주 18교구	김말자 16교구
김정연 8교구	강덕필 21교구	최문실 12교구	전은희 10교구	김정자 14교구
김정희 4교구	이복순A 20교구	류진회 2교구	임태주 17교구	장영미 22교구
옥미자 9교구	이복순B 11교구	이혜숙 6교구	황순란 청년1부	김정운 24교구
강옥련 1교구	정원임 23교구	서명란 13교구	조현영 교재연구	이향란 7교구
장혜구 19교구	나영실			

■ 사랑부지도 신범식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연주자 장연희 노은영

■ 선 교 사 송요한

Copyright© 2009 충현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